

아르헨티나 최근 정국동향과 폐소화의 향방

□ 두알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

-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비상정부 형태로 출발한 두알데 정권은 심각한 정치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. 취임초 50%이상이던 지지율은 거의 바닥수준으로 하락하였음.
- 두알데의 지지율 급락은 지방정부와의 갈등, IMF와의 외채도입 협상 실패, 대중소요 증가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(Governability)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음.
- 페론당 출신인 두알데는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는 약기 보존하기 위해 2003년 대선에는 출발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는 등 정통성 보완에 노력해 왔음.
- 그러나 2003년 대선을 겨냥한 같은 페론당 출신인 지방정부 주지사들의 정치적 공세, 과거 집권층인 두알데 정권의 속성에 대한 일반 정부의 반감과 이에 따른 대중시위 빈발 등으로 정국운영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임.

□ 조기 총선실시 필요성 대두

- 현재 집권층 내부에서도 분열양상이 계속되고 국민들의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임.
- 이러한 상황으로 2003년 9월의 대선까지 기다리지 말고, 조기 대선을 실시,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한 정권에 의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자는 의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.

□ 폐소화 불안에 따른 환율제도 개편논의 재연

- 두알데 정권의 정국운영 능력결여는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, IMF와의 외채도입 협상 실패, 경제침체 계속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음.
- 최근의 경제불안으로 폐소화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자 그동안 잠잠하던 환율제도 개편논의가 재연되고 있음.
-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 수습과 IMF지원자금 수혜를 위해 1990년 대 초반이후 유지해오던 태환제도를 2002년 1월 공식적으로 폐지하고, 이후 이중환율제를 거쳐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음.
- 그러나 태환제도 폐지 이후 기대되었던 수출경쟁력 회복에 의한 경제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물가불안만 가중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환율제도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, 달러공용화의 채택은 통화주권의 포기라는 점에서 국내여론의 반대에 봉착해 있고, 이중환율제로의 회귀는 IMF의 반대에 의해 실행이 어려운 딜마에 봉착해 있음.

□ IMF 지원없이는 단기간에 경제회복세 기대 난망

-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의 최대 현안은 과중한 대외채무 부담이며,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추가 자금조달이 절실한 상황임.
- 국제금융시장은 동국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재개를 위해서는 IMF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.
- 아르헨티나 정부는 4월말까지 IMF지원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를

표명하고 있지만, 4월 초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IMF실사단은 재정수지 개선 부진 등을 이유로 추가 자금지원을 유보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경제불안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문의 : 국별조사실 배상욱 차장 subae@koreaexim.go.kr
최성규 행원 ppio93@koreaexim.go.kr